◈며느리 권씨 열전 12-2

북원국(北元國) 소종(昭宗)의 황후 권씨 (추밀공파15世, 권겸權謙의 딸)

權門과 공민왕의 개혁세력

여기서 아이로니컬한 것은 불과 4년뒤 병신년 기철, 노책, 권겸 등 친원파를 척결하는 공민왕의 친위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른바 병신정변(丙申政變), 기노지변(奇盧之變)이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권겸등은 일족이 멸하고 그 아들 중 권항(權恒)은 체포되나 권력과 멀어 제주유배로 끝난다. 청주한씨 상당군 딸이 부인이다. 당시 권문과 청주 한씨와 혼사가 많았다.

이 때 공민왕은 대원제국의 최고 권력자 기황후와 그 황태자비 권씨네(권황후)와 또 다른 원나라 황제의 후비 노씨네를 도륙한 것이다. 당연히 평소 같으면 상상이 안되는 일이지만 이미 明으로부터 언질(獨立)을 받고 혼란기라 기황후가 응징하고 왕을 교체하려고 쳐들어오지만 최영, 이성계에 의해 격파당한다, 왜구의 득세, 북방의 침입이 결국 신흥무장세력을 키워주는 꼴이 된 셈인데 동북방의 무력 이자춘(李子春,1315-1360,이성계 父)와 공민왕의 필요에 의한 협력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고려를 세운 권문이 또 공민왕 등극에 영향을 준 권신 권준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니 2013년 한씨(한상질, 한명회 부친)의 부장묘로 알았는데 권준의 묘로 밝혀지는 헤프닝도 이에 유래한다. 아마 권준이 왕보다 더 호화롭게 누렸던 권력을 조선 500년에 최고로 누렸던 한명회의 운명도 이 아버지 묘소의 전도(轉倒)된 음덕(陰德?)에서부터 시작되고 한명회에 의해 또 다른 권문(현덕왕후 권씨)이 멸문됨은 얄궂은 역사의 수레바퀴의 굴림인 것이다.

거기다가 공민왕 피살사건에서 권준의 증손자 권진(權瑨)이 공민왕의 변태적 행위의 조직인 자제위(子弟衛) 멤버로 연루되어 이인임 일파에게 척살 당한다. 물론 집안도 다시 한번 엉망이 되고 만다. 이인임의 등장과 몰락은 10.26이후 전두환의 등장과 오버랩되고 그의 몰락 또한 그렇다.

권준에게는 두 아들 형(衡)과 적(適)이 있었다. 맏아들 형(衡)에게는 용·현·호·균·주 다섯 아들이 있었고 장남 용(鏞)은 할아버지 권준의 묘지명의 글씨를 썼으며 용의 셋째 아들 진(瑨)이 공민왕의 자제위였다. 권적의 딸이 당대 문호 한수(韓脩)에게 시집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영의정을 역임한 한상경과 조선 국호를 받아온 한상질, 판윤을 지낸 한상환이다.

한때의 당대구봉군의 영화가 일시에 무너지지만 권보의 아들 권고(權皐), 또 그의 아들 권희(權僖)가 이성계와 가까워서 아들 권근(權近)을 설득하여 조선개국의 원훈이 되도록 하고 이의 연결이 추밀공파의 융성으로 이어지나 세조찬탈(소위 癸酉靖難)에 권람(權擥), 을사오적 권중현(權重顯,1854-1934), 현대 군부독재에 영합한 인물군의 탄생은 또 다른 업보이다.

홍건적의 난에 공민왕이 피난한 곳도 안동이니 이는 또 다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하여 '정신문화의 수도'이며 '권문의 본향'이라니 이제 정말 수도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은 잠시 미뤄진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전쟁의 도가니 속의 권황후

그러면 당시 권황후의 행적과 그의 딸이 몽골칸(北元)의 부인(皇后)이 되는 과정을 추적해보자. 여기에도 또 반전의 묘미가 있다.

원혜종(惠宗, 소위 순제順帝라는 것은 明이 붙인 모욕적인 호칭)은 1368년 대도(北京)가 주원장(明太祖)에 의해 함락되자 상도(上都, 내몽골 북부)로 갔다가 다시 북쪽(應昌府)으로 도망가고 여기서 권황후는 1370년 5월 16일(음력) 이문충(李文忠) 군대에 의해 응창(應昌)이 함락될 때 후비 광산 김씨 (金允藏의 딸)가 낳은 아들인 아흡 살의 매적리팔라(買的里八剌)와 함께 포로가 되어 북평(北平)에 이치(移置)되고 1374년 9월 북원(北元)으로 귀환되었다. 당시 명나라 대신들이 이 아들을 종묘의 희생양으로 바치자고 했으나 명태조가 거부하고 송환시켰다.

여기서 그녀 권황후의 딸이 대칸의 부인 된 것은 또 다른 인연이다. 앞서 고려 인종이 세자 시절 쿠빌라이. 아릭부케 대칸(황위)계승 싸움에서 쿠빌라이와 인연으로 고려가 명맥을 유지한 사실이 있었다. 이때부터 몽골의 대칸(大汗)은 각 부족장이 모이는 쿠릴타이(Quriltai) 회의에서 정한다. 따라서 유목민의 전통은 매우 민주적이고 이의 유형이 바로 신라의 화백제도(和白制度)이다. 만장일치제도라는 전통인데 과연 '만장일치'라는게 가능한가? 요즘 이 극단적 분열(남북, 보혁, 남녀, 세대, 지역)의 시대에 다시 집어 봐야하는 대목이 아닐 수없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입장을 바꿔 보면서 계속 행동(身)하고 토론(口)하고 사고(意)하다 보면 너와 나가 '최대 공약수'를 찾아 같아지고 그것이 공동체정신으로 승화되고 엄청난 폭발력으로 힘을 내며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고화한다는 것이다. 소국 신라가 왜 통일이 주역이 되었나 살펴볼 필요가 여기에 있고 그 정신이 바로 코리언의 주된 정신이 된 것이다. 특히 요즘 봉화, 춘양지역의 전통과 풍습에서 더욱 이를 절감 할 수가 있었다.

이때 이후 쿠빌라이와 아릭부케 가문간의 대척점에 서게 된다. 그런데 북원(카라코룸, 사실상 몽골족의 수도)에서 북원시대를 열게 된다. 1대 원혜종(1368-70, 기황후 남편), 2대 원소종(권황후 남편, 1371-78). 3대 토곤테무르(1378-88, 천원天元, 원소종 이복동생)인데 여기서 토곤테무르가 왕위를 이은 것은 원소종의 아들인 매적리팔라(買的里八剌)가 생사불명인 상태여서 부득이한 조치였을 것이다. 만일 이때 매적리팔라가 황제가 되었다면 광산김씨 김윤장(金允藏)의 외손자가 황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설에 그가 북원으로 가서 다시 황제가 되었다는 말이 있기도 하다.

권황후의 사위 대칸(大汗) 조리그투칸

토곤테무르가 명나라와 전투에서 패하자 아락부케의 후손인 엥흐 조리그투칸 (1358-1392, Enkh Zorigt Khan, 재위 1388-1392)이 그를 죽이고 북원(北元)을 해체하고 비록 쪼그라든 몽골제국이지만 대칸(황제)이 되고 그 뒤로도 몽골 오이라트는 명나라 영종을 포로로 한 적도 있다. 이후 청나라 황제가 대칸을 겸하는 일이 1600년대에 있고 나서 완전히 망하지만 이후 현 몽골공화국 성립전 까지도 명목상 대칸이 존재했었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大韓, 大汗)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칸(kHAN, 權)은 아직도 살아있다.

권황후의 딸이 조리그투칸의 부인(황후)가 된 연유는 알 수 없으나 남편 소종(昭宗)이 아들이 있음에도 이복동생에게 왕위를 주도록 하고 그 뒤 권왕후와 자녀가 돌아오자 뭔가 권황후와 3대 토곤테무르 반대파와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권황후가 1410년5월22일까지 살았다는 것이라면 엥케칸(恩克汗, ? ~ 1394, 권황후의 외손자?)의 등극 등을 다 봤을 것이다.

권황후의 5대조 추밀공파 파조 권수평(權守平)은 안동에서 개성 인근 진동으로 상경하여 낮은 벼슬부터 시작하는데 근면, 성실, 정직의 샘플이었다. 지인이 귀양가면서 맡긴 전답을 수년 후 전곡을 합해 돌려주고 벼슬이 높아지면서 조강지처를 버리라는 권유도 강하게 내치는 등 모범적이었다.

일찍이 상경한 것이 결국 후손들이 영달하는 기반이었고 그것도 서울(開京) 근방이니 가능한 일이었지만 근본은 이신작칙(以身作則)에 있었을 것이다. 스스로 몸으로 실천하여 앞서나가 모범(教範, text)가 되는 것이 지도자의 태도라는 것이다. 약간의 권력으로 태만하고 오만하면 결국 기만으로 가고 이는 무도, 무지, 무모의 종말은 비참하다는 것과도 같다.

13世 증손자 권보(權溥)가 드디어 명문으로 도약하니 그것이 당대구봉군(當代九封君)인데, 본인과 아들들 권준(權準)·권종정(權宗頂)·권고(權皐)·권후(權煦, 王煦, 사위겸 아들에 권상좌 중국 권씨 권상재)· 권겸(權謙)이고, 사위들 안유충(安惟忠)· 이제현·순정대군(順正大君) 왕도(王璹)·회안대군(淮安大君) 왕순(王珣)이다. 권겸의 아들(養子) 중에도 권침(奇般子不花, 중국인)이 있다.

그리고 아들이 다섯인데 막내가 권황후의 부친 권겸이다. 여기서 셋째 아들 권고(權皐)의 아들이 권희(權僖, 양촌 權近 부친)이니 나이는 비슷하지만 권황후가 권근의 5촌 아주머니이다.

이렇듯 명문가이니 기황후가 자신의 출신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 권황후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몽골제국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 핏줄에 권문의 외손이 있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줄 것이다.

언젠가 몽골초원 응창부(내몽골)에 묻혀 있을 그녀의 고혼(孤魂)을 달래는 일을 안동권씨대종회에서 한다면 숭조사상의 발현이요. 대칸국(大韓國)의 명가로서의 위상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 굳게 믿어 마지 않는다. 요즘 코리아의 통일을 넘어 초원으로 가는 몽골과의 연합국의 꿈, 나아가 중앙아시아의 단군의 고국들(우즈벡 등)을 지나 우랄알타이 연방으로 가는 꿈과 남으로 왜를 복속시키고 류구, 대만을 거쳐 동남아 고국(묘족, 미얀마, 인디아 등)으로 가는 길도 열어가는 대위업도 예서 시작되었다고 인식한다면 이는 곧 지난날 몽골초원에 자랑스런(?) 권문의 역사가 한자락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날이 곧 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그전에 전비(前非)를 청산하고 일일신(日日新)하는 혁신적인 권문(權門)의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글 권오철 기자

원나라 황제의 재위 기간과 연수

황 제	재위기간	재위연수	황 제	재위기간	재위연수
① 세조	1260~1294	34년	⑥ 태정제	1323~1328	3년
② 성종	1294~1307	13년	⑦ 명종	1329년 2월~8월	6개월
③ 무종	1307~1311	4년	⑧ 문종	1329~1332	4년
④ 인종	1311~1320	9년	⑨ 냉종	1332년10월~12월	2개월
⑤ 영종	1320~1323	3년	⑩ 혜종	1333~1370	37년

주의 : 구체적인 재위 기간은 다음과 같음
명종(1329년 2월27일~1329년8월30일) — 문종(1328년 10월~1329년4월 및 1329~1332, 재위4년) — 냉종(1332년10월23일~1332년12월14일, 재위2개월)
영종(英宗)과 냉종(寧宗)은 다른 사람임.

권기(權紀)의 '영가지永嘉誌'(1608년) 권2(卷二)를 통해 본 조선 시대 및 오늘의 안동 이미지(2)

권 기 대

복야공파 길송문중 용만(龍巒) 권기(權紀)의 23세손
국립공주대학교 교수(경영학박사)

〈그림. 3〉과 같이 오늘날까지 조선시대로부터 경작된 품목—콩, 배, 산약(참마), 구기자의 지리적 표시 마크를 계승, 경작되고 있다면, 모두 고유한 지역특화 자원으로서 동태적이고, 불확실한 시장환경에서 경쟁우위의 위치에 다가설 수 있다.

요컨대, 조선 시대의 안동지역 이미지는 〈표. 1〉과 같이 제1차 산업의 농경문화 속에서도 재지사족 및 지역민들의 삶의 철학은 애향심과 자긍심으로 기록문화(유교) 책판에도 적지 않는 관심을 가졌다고 해석된다. 그러한 지역 농산물을 책판의 내용에 반영하고, 보관 유지해 왔다고 볼 때, 여타지역과 달리 오늘날 고유한 역사성 및 전통성을 가진 안동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한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국가인증마크

'영가지' 권2에서 첫째로 언급된 산천은 산과 내(川), 즉, 안동지역의 자연의 특징을 언급한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산천은 토품이나 토산보다 언급 비중이 매우 높다. 물론 안동대도호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행정구역이 넓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산천의 내용을 기록한 장점을 보였지만, 토품 및 토산에 비해 다소의 균형이 필요하다.

안동지역의 상징성을 대변하고, 명산을 상징하는 학가산, 청성산, 청량산을 정확하게 언급한 것으로도 충분히 안동의 천연자연에 관한 차별적인 경관의 특징들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점강법(漸降法)을 이용하여 지역의 산천 자원을 산(山)→고개(峴)→높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臺)→절벽(絶壁)→굴(窟)→암(巖)→반석(盤石)→조산(造山)→합강(合江)→천(川)→연(淵)→진(津)→탄(灘)→포(浦)→담(潭)→용추(龍湫)→용혈(龍穴)→도(島)→계(溪)→장사(長沙)→퇴(堆)→용정(龍井) 등 구체적·단계적으로 분류하였고, 이의 농업용수 및 관광자원의 자산화 맥락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둘째, '영가지' 권2의 토산은 '특정 지방의 산물'을 뜻한다. '영가지'를 토대로 〈그림. 4〉에서 안동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토품들을 현(縣) 단위의 지역별로 열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 2〉와 같이 안동을 공간적 단일지역으로 개념화하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민물고기(어류), 한약재, 산림자원, 의복재료, 생활용품, 광물자원 등으로 분류·정리하였다.

오늘날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림. 5〉 및 〈표. 3〉과 같다. 즉, 안동에서 통계적으로 집계되고, 생산되는 주요한 농식품은 39개 품목이다. 〈표. 2〉과 같이 414년 전의 기후변화(가뭄, 홍수, 우박, 병해충) 속에서 재배되었던 품목들이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단하게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벼, 산약(참마), 콩, 수박, 배, 송이, 포도, 한지 등이며, 2019년 오늘날 안동에서 생산되지만, 전국의 주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는 품목은 사과, 생강, 고추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공동브랜드의 부착과 지리적 표시제를 인증받고, 후자는 공동브랜드와 국가인증마크의 획득으로 부가가치 농산물 브랜드를 포장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로 애착심을 유인하는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권기가 편찬한 '영가지' 권2의 토산, 즉, 다른 지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목할 만한 차별적 내용을 언급하면, 첫째, 지역생산 특화자원은 88개 품목이었다는 점이고, 둘째, 414년 전의 안동지역은 오늘의 봉화(봉화, 춘양, 재산, 소천)라는 산악지대에서 자란 야생 한약재들이 많이 생산 및 유통되었고, 조선시대의 안동은 '한약재의 고장, 한약재 주산지'로서의 지역 평판을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종류	안동에서 생산된 주요 농산물 품목
조선시대 안동 이미지	민물고기	은어(銀口魚), 황어(黃魚), 누치(訥魚), 잉어(鯉魚), 붕어(鮒魚), 가물치(烏魚), 쏘가리(錦鱗魚), 열목어(餘項魚), 8개 품목
	한약재	산약(山藥), 구기자(枸杞子). 백출(白朮), 창출(蒼朮), 시호(柴胡), 백작약(白芍藥), 전호(前胡), 대추(棗), 배(梨), 낭독(狼毒), 대극(大戟), 택사(澤瀉), 반하(半夏), 모과(木果), 원지(遠志), 수박(西瓜), 무(菁根), 인삼(人參),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독활(獨活), 백지(白芷), 오가피(五加皮), 세신(細辛), 문합(蚊蛤)(五倍子), 천남성(天南星), 여로(藜蘆), 황벽(黃檗), 산갓(山芥), 석청(石淸), 청밀(淸蜜), 곰슬개(熊膽), 남슬(藍漆), 삼부(三夫), 채소(菜), 승마(升麻), 옻(漆), 황령(黃笭), 산삼(山蔘), 더덕(沙蔘), 영지(芝草), 송이(松蕈), 석이(石蕈), 산죽(山竹), 밤(栗), 산포도(山葡萄), 산자고(山茨菰), 새삼씨(兎絲子), 잣(海松子), 청자옥채(靑紫玉菜), 52개 품목
	산림자원	소나무(松), 자목(梓木), 가판(枷板), 가래나무판(梓板), 박달(朴達), 측백나무(黃柏), 가래나무(楸木), 피나무(椵木), 속새(木賊), 9개 품목
	의복재료	풀솜(雪綿子), 목화(木花), 2개 품목
	생활용품	벼루(紫硯石), 측백나무씨(栢子仁), 측백나뭇잎(側柏葉), 왕골(莞草), 옹기를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 흙(瓮土), 널빤지(黃腸板), 개암나무(榛), 닥나무/한지(楮), 종이(紙), 돗자리(席子), 10개 품목
	광물자원	백토(白土), 사철(沙鐵), 석회(石灰), 계석(溪石), 황회(黃灰), 주토(朱土), 운모(雲母), 7개 품목
오늘날의 안동 이미지	농산물	벼, 사과, 배, 생강, 고추, 콩, 마늘, 딸기, 복숭아, 자두, 포도, 멜론, 수박, 참외, 애호박, 고구마, 단호박, 오이, 배추, 무, 우엉, 참깨, 양파, 미나리, 단감, 국화차, 한우, 담배 28개 품목
	임산물	송이, 한지, 지황, 산약, 안동포, 5개 품목
	식품	소주, 찜닭, 문어, 간고등어, 식혜, 김치, 6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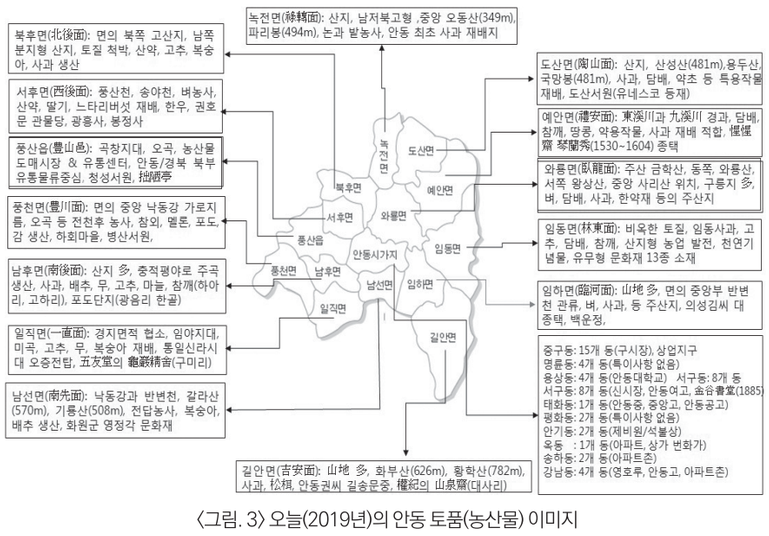
주1 : 표 상단의 보울트체는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으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획득한 품목
주2 : 표 하단의 오늘날 안동 이미지에서 보울트체는 안동지역이 전국 생산량이 1위의 농산물 품목

〈표. 2〉 '영가지'에 기록된 안동지역 생산 농산물 이미지

지역생산 품목의 브랜드 차별성 전략			
안동찜닭	안동찜닭 등록상표(제44-179호) 최종처분(일자)등록결정(일반)(2013.03.27), 출원인: (사)안동찜닭생산협회	안동한지	안동한지 등록상표(제44-180호) 최종처분(일자)등록결정(일반)(2013.03.27), 출원인: (사)안동한지마을
Andong Apple	2008년 6월 27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출원, 2010년 2월 2일로 등록	안동콩	안동콩 등록상표(제44-254호) 최종처분(일자)등록결정(일반)(2014.05.19), 출원인: 안동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그대생강	2018년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안동생강융복합사업단에서 개발된 품목별 공동브랜드이나 특허청에 출원 추적 불가.		산약(참마)[1], 벼, 고추, 수박, 배, 송이, 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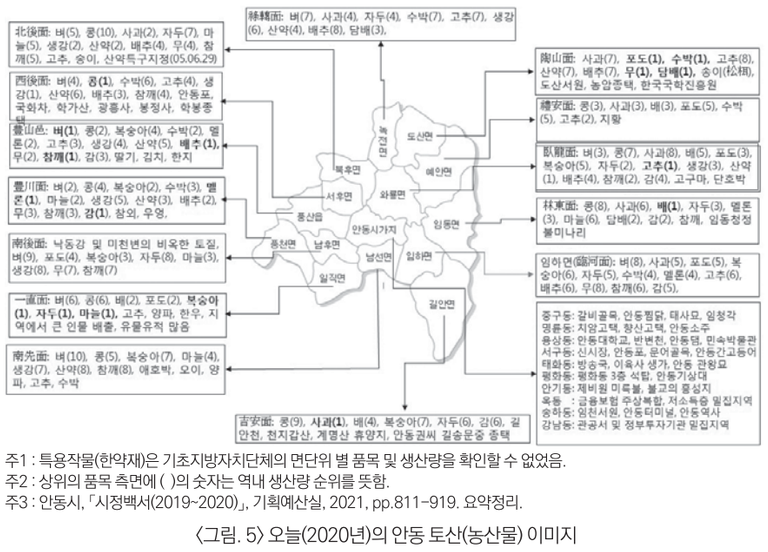
주1 : 안동참마는 2007년 10월 9일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 2009년 07월 21일 등록
주2 : 단체표장은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되므로, 지식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되나, 지리적 표시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더 엄격한 품질과 생산량 계획에서도 통제 관리를 받음

〈표. 3〉 안동 농산물의 지식 재산권 방안



〈그림. 3〉 오늘(2019년)의 안동 토품(농산물) 이미지

〈그림. 4〉 조선시대(1608) 안동의 토산(농산물) 이미지



〈그림. 5〉 오늘(2020년)의 안동 토산(농산물) 이미지